

원면 현황 - 중국·터키 등은 활기 왕성, 일본 등은 신중

원면(原綿)의 2008년 봄 시세는 1파운드에 90센트 하던 것이 뚝 떨어져 최근에는 70센트 이하로 떨어져 있다. 소비국들의 원면 거래는 대체로 신중한 편이다. 중국은 3~4개월 앞까지 원면을 확보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은 당장 필요한 만큼만을 구입하는 등 천차만별이며, 방직 산업의 활기가 있고, 없음이 원면을 확보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면화상(綿花商)에 따르면 2~3월에 뉴욕 선물 거래에서, 원유(原油), 곡물(穀物) 가격이 급등하자 일부 소비자는 원면 값의 상승을 염려하여 미리 원면을 확보하였지만 소비국은 대체로 신중하게 구입하고 있으며, 그 상황은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비교적 활기가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원료 에너지, 인건비, 금리, 인민 위안 등이 올라 섬유 수출 전망이 어두운데도, 두 번째 수입 쿼터(輸入 quota)가 발급되었다는 소문이 돌자, 몇 달 앞에 사용될 원면을 확보하였으며, 주요 소비국 중에서는 가장 먼 선물까지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다음으로 활기 있는 나라는 터키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한 때는 섬유를 중국으로부터 공급받고자 그동안의 조달지(調達地)를 옮겼는데, 중국의 생산 코스트가 빠르게 오르는 것을 보고, 터키에서의 생산을 다시 검토하여, 결과적으로 터키 방직의 생산이 커지자, 원면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게 된 배경이 된 것 같다.

동남아시아의 상황은, 인도네시아의 활기가 눈에 띌 만큼 좋은 것 같다. 1 달러 = 9,000 ~ 9,200 루피아(rupiah)로 외환 시세가 안정되어 있으며, GDP(Gross Domestic Product : 國內 總生産) 성장률이 5~6%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inflation), 정치가 모두 안정되어 있는 것이 구미 시장에서 좋게 평가되고 있다.

미국 시장이 악화하면서, 의류 제품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여전히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제품의 가격이 올라, 미국의 셔츠 메이커로부터 면이나 폴리에스터/면 혼방(混紡) 셔츠지의 거래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방적의 원면 확보도 선물을 잡으려는 경향이 보인다고 한다.

그런 반면에 한국, 대만, 태국, 일본의 단골 구매자들은 활기가 없어 보인다. 특히 중국 플러스 원의 후보(候補)라고 하던 태국에는 수년 동안 바트(baht) 시세가 올라 바디 블로(body blow)를 맞은 격이 되어 봉제품의 수출 채산성(輸出 採算性)이 나빠짐으로써 그 영향이 중류(中流 : midstream) 및 상류(上流 : upper stream) 업계에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